

중간시험 해설 및 결과

Econ203-05 조남운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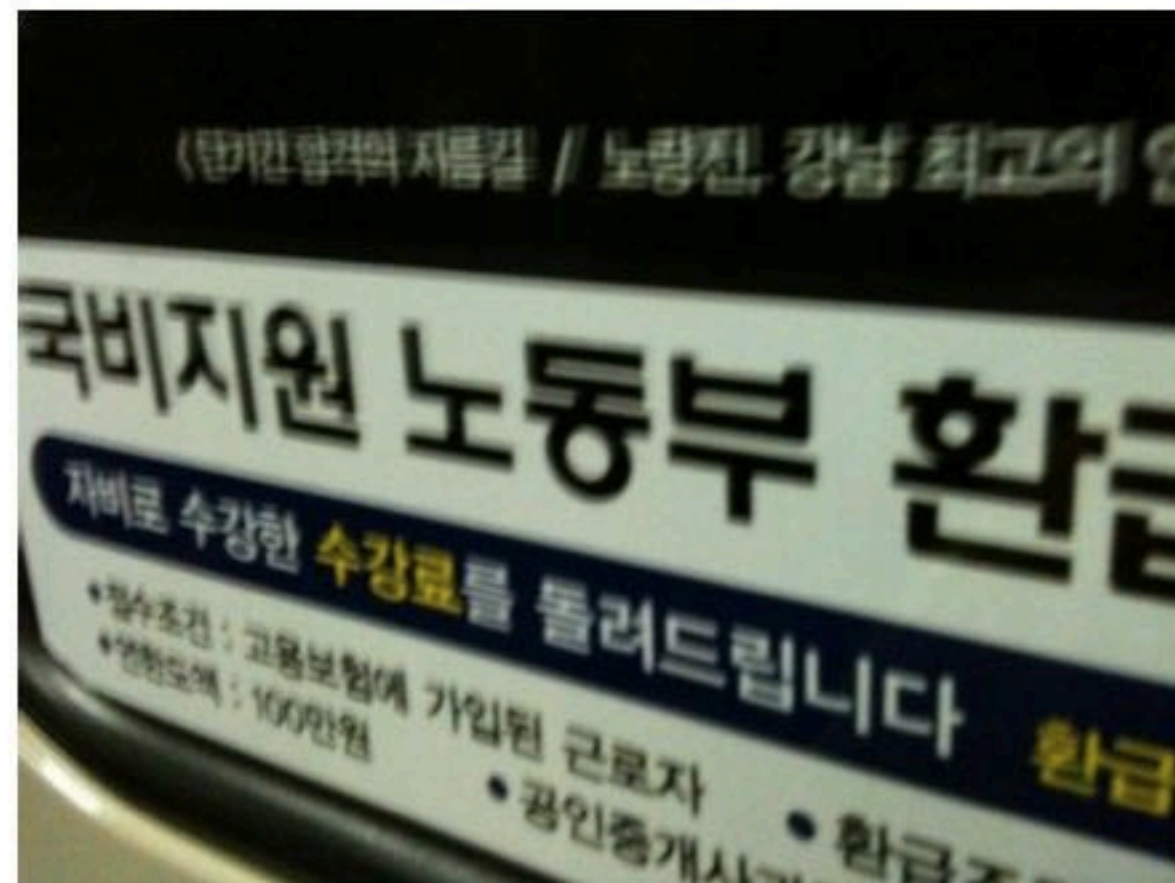
Outline

- 중간시험 해설
- 중간시험 통계



挫折禁止

I - I



- (a) (11 points) 국가가 사설 공인중개사 학원에 수강료 보조를 하는 이유는 무엇인가? 배웠던 이론을 활용하여 설명하라

1-1

김한 솔

먼저 수강료 보조 대상이 고용보험에 가입된 근로자이다. 그러므로 구조적 실업을 줄이기 위한 정부의 정책 중 하나로 볼 수 있다. 구조적 실업은 산업구조의 변화로 인해 발생하는 실업을 말하는데, 공장 자동화로 일자리를 잃게 되는 것을 예로 들 수 있다. 기술의 발전으로 일자리를 잃게 되는 근로자들이 많은데 공인중개사라는 새로운 직업에 대해 교육받을 유인을 수강료 보조를 통해 증가시켜주고 있는 것이다. 결과적으로 근로자가 일자리를 잃게 되더라도 공인중개사로 직업을 바로 전환할 수 있게 되어 실업률이 낮아지는 효과가 발생할 것이다.

(b) (11 points) 위 표의 ? 부분을 분수식으로 쓰시오(풀어서 계산하지 말것. 약분하지도 말것. 정확한 분수식만 유효)

통계표	항목명1	단위	년\월	09
경제활동인구	15세 이상인구	천명	2008	39,692
	경제활동인구	천명	2008	24,456
	비경제활동인구	천명	2008	15,236
	취업자	천명	2008	23,734
	실업자	천명	2008	722
	실업률	%	2008	?
	경제활동참가율	%	2008	?
	고용률	%	2008	?

실업률: $722/24456$,
 경제활동참가율: $24456/39692$,
 고용률: $23734/39692$

- (c) (11 points) 한국 통계청은 2005년부터 실업통계에 사용하는 구직활동기간의 기준을 1주에서 4주로 바꾸어 실업률을 산출하고 있다. 이때 실업률은 어떻게 변하는가? 그 이유가 무엇인지 설명하라.(5) 그리고 실업률이 가지는 한계와 보완방안에 대해서 논하라.(6)

1-3

임한솔

구직활동기간의 기준이 1주에서 4주로 바뀔 경우, 실업률은 증가한다. 예를 들어, 통계청의 조사시점으로부터 2주 전에 구직활동을 한 사람은, 1주 기준에서는 비경제활동인구로 포함되지만, 4주 기준에서는 경제활동인구, 그 중에서도 실업자로 포함될 수 있다. 따라서 4주 기준에서 실업률이 더 높게 나타난다. 실업률에는 사각지대가 있다. 먼저 구직활동을 하다가 도저히 힘들어서 포기한 ‘구직포기자(실망실업자)’를 비경제활동인구로 포함시켜버린다. 또한 실제로는 실업자이지만 취업상태로 구분되는 과소노동인구가 과잉포착되기도 해서 정확성이 떨어지기도 한다. 이를 보완하기 위해 경제활동인구를 15세 이상인구로 나눈 ‘경제활동참가율’과 취업자를 15세 이상인구로 나눈 “고용률”을 보조지표로서 사용할 수 있다.

2. (33 points) 아래 모델 설명과 거시경제 표를 보고 물음에 답하라.

index	rGDP	YD	C	$I_{Planned}$	$AE_{Planned}$	$I_{Unplanned}$
0	0	0	300	500	800	-800
1	500	500	600	500	1100	-600
2	1000	1000	900	500	1400	-400
3	1500	1500	1200	500	1700	-200
4	2000	2000	1500	500	2000	0
5	2500	2500	1800	500	2300	200
6	3000	3000	2100	500	2600	400
7	3500	3500	2400	500	2900	600

• Assumptions:

1. rGDP: 실질 국내총생산, Y: 세전소득(=rGDP), YD: 가처분소득, C: 소비지출, I: 투자지출, AE: 계획된 지출, Planned: 계획된, Unplanned: 계획되지 않은, MPC: 한계 소비성향, A: 독립적 소비자 지출, t: 세율
2. 위 경제의 소비지출은 아래의 관계를 따른다고 가정한다.

$$C = A + MPC \times YD$$

3. 모든 종류의 소득에 세율 t%의 세금이 붙는다. 따라서 총 세금은 총소득에 세율을 곱한 값이 될 것이다.
4. 지출은 소비지출과 투자지출, 정부지출밖에 없다.
5. 물가는 변하지 않는다.
6. 균형점의 조건을 정확하게 충족하는 상태가 없다면, 만족조건에 가장 가까운 상태로 간주한다.

- 위 표는 MPC=0.6, A=300, t=0%일 때의 실질GDP에 따른 지출과, 의도치 않은 재고변화의 관계를 나타내고 있다.

(a) (11 points) 별다른 변화가 없을 경우 위 경제의 실질 GDP는 어떤 수준에서 결정될 것인가? 그 결정 과정에 대해서도 설명하라.

2-1

이철우

별다른 변화가 없을 경우 $rGDP = AE[\text{planned}]$ 인 2000에서 $rGDP$ 가 결정될 것이다. $rGDP < AE[\text{planned}]$ 일 경우 전체 경제는 과소공급/초과수요 상태에 놓이게 되며, $I[\text{Unplanned}]$ 가 줄어든다. 공급 측면에서는 이러한 변화에 대응하기 위해 투자지출을 늘리고 결국 균형점에 도달한다.

$rGDP > AE[\text{planned}]$ 일 경우 전체 경제는 과다공급상태에 놓이게 되며 $I[\text{unplanned}]$ 가 쌓여간다. 이 경우 공급측면에서 투자지출을 줄이게 되고, $i[\text{unplanned}]$ 가 0이 될 때까지 이 조정과정을 계속한다.

(b) (11 points) 다른 모든 조건이 동일한 상태에서 $t=20\%$ 일때의 표를 작성해보자. 균형점이 어떻게 달라지는가? 이것을 어떻게 해석할 수 있는가? (Hint: 정부지출은 없다)

2-2

신예
선

1) case3: $rGDP=1500$ 에서 결정:: $rGDP$ 감소. YD 는 tax 영향으로 감소 --> C 감소 --> $AE[p]$ 감소 --> $rGDP$ 균형점 감소
2) 정부가 세금을 걷음으로써 소비할 수 있는 가처분소득의 감소로 수요가 감소하여 결국 실질GDP의 감소로 이어진다.

case	rGDP	Tax	YD	C	I[Planned]	AE[Planned]	I[Unplanned]
0	0	0	0	300	500	800	-800
1	500	100	400	540	500	1040	-540
2	1000	200	800	780	500	1280	-280
3	1500	300	1200	1020	500	1520	-20
4	2000	400	1600	1260	500	1760	240
5	2500	500	2000	1500	500	2000	500
6	3000	600	2400	1740	500	2240	760
7	3500	700	2800	1980	500	2480	1020

(c) (11 points) 이제 정부부문을 추가해보자. 이 정부는 매 해 균형지출을 한다. 즉, 세금을 거둔 만큼만 지출한다. 이것은 $AE_{Planned}$ 에 전부 반영된다고 본다면, 균형점이 달라지는가? 이것은 어떻게 해석할 수 있을 것인가?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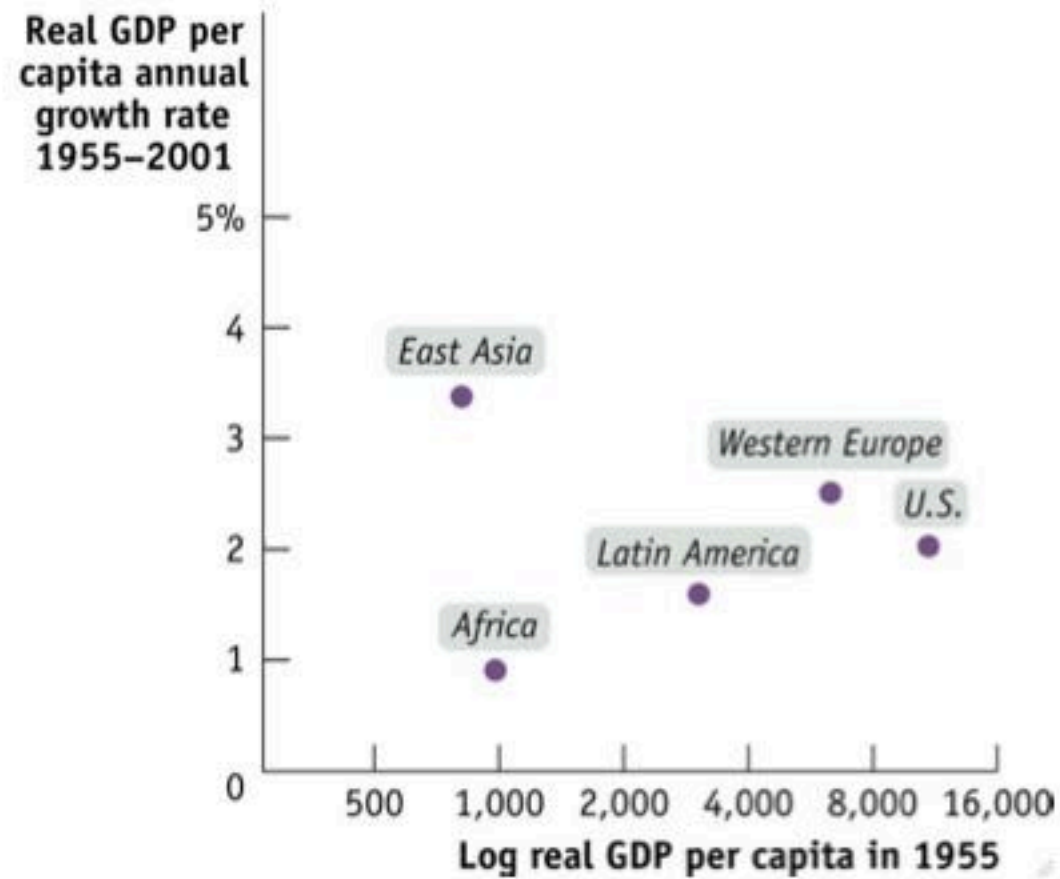
2-3

노윤민

균형점은 rGDP 2500 수준으로 결정된다. 정부지출은 한계소비성향에 영향을 받지 않고 $AE[p]$ 에 곧바로 영향을 주기 때문에 생산량이 정부의 조세와 지출이 없을 때보다 더 많아지게 된다.

case	rGDP	Tax	YD	C	I[Planned]	G	AE[Planned]	I[Unplanned]
0	0	0	0	300	500	0	800	-800
1	500	100	400	540	500	100	1140	-640
2	1000	200	800	780	500	200	1480	-480
3	1500	300	1200	1020	500	300	1820	-320
4	2000	400	1600	1260	500	400	2160	-160
5	2500	500	2000	1500	500	500	2500	0
6	3000	600	2400	1740	500	600	2840	160
7	3500	700	2800	1980	500	700	3180	320

3. (33 points) 아래 산포도를 보고 물음에 답해보자.



(a) (11 points) 수렴가설이란 무엇인가? 위 산포도는 수렴가설을 뒷받침한다고 할 수 있는가? 수렴가설을 지지하는 경제학자는 위 산포도를 어떻게 해석하는가?

3-1

김태경

- 1)수렴가설이란, rGDP가 낮은 국가의 경제성장률이 rGDP가 높은 나라들보다 높아서, 결국 미래에는 경제규모가 같아질 것이라는 가설이다.
- 2)위 산포도는 수렴가설을 뒷받침하지 못하는데, 왜냐하면 rGDP가 낮은 국가라 해서 경제성장률이 높지 않기 때문이다. 즉, 상관관계가 관찰되지 않는다.
- 3)수렴가설을 지지하는 경제학자는, 각국의 사정이 다르기 때문이라고 본다. 즉, 예를 들어, 아프리카카 같은 경우 내전 등으로 인해 안정된 정부가 없고(-->없진 않음) 인프라도 열악하다. 그래서 경제성장률이 낮지만, 만일 이들 국가들이 선진국과 같은 안정된 정부, 향상된 인프라 등을 갖는다면 수렴가설은 성립할 것이다. 즉, 조건이 동일해야 한다.

(b) (11 points) 실물자본이나 인적자본은 수확체감의 법칙이 작용한다고 한다. 수확체감의 법칙이란 무엇인가?

3-2

신지우 수확체감의 법칙이란, 실물자본 인적자본의 증가에 따른 생산량의 증가분이 자본을 한 단위 더 추가할 때마다 점점 감소한다는 것을 의미한다. 이는 자본의 투입이 지속적인 경제성장을 이끌어내는데 한계가 있음을 뜻한다.

(c) (11 points) 사실 실물자본이나 인적자본의 수확체감 법칙이 일반적이라고 가정한다면,

Page 5

CON203-05

Midterm

수렴가설은 그 논리적 귀결이 될 수 있다. 왜 그럴까?

3-3

정민영

경제규모가 이미 큰 나라의 경우 지금까지의 성장 과정에서 이미 많은 양의 인적자본 및 실물자본을 투입하여 현재의 경제성장을 추동해 왔을 것이다. 따라서 수렴가설에 따르면, 이러한 나라의 경우 궁극적으로 오랜 시간이 지나게 되면, 인적자본이나 실물자본만을 증가시켜도 생산성의 상승에 따른 경제 성장이 이루어지지 않는 상태에 도달하게 될 것이다. 반면, 아직 경제성장이 더딘 나라는 왼쪽의 그래프(생략)에서 볼 수 있는 것처럼 인적자본 또는 실물자본의 변화에 따른 경제 성장이 상대적으로 크게 작용할 것이다. 따라서, 이러한 인적자본 및 실물자본의 수렴가설이 ‘보편적’으로 성립한다면, 궁극적으로 수렴가설은 경험적으로 입증될 수도 있을 것이다.

- (a) (11 points) AS-AD 모델: 음(negative)의 공급 충격이 발생할 경우 정부는 모든 주요 거시지표를 살릴 수는 없으며, 하나를 살리는 대신 다른 하나를 희생해야 한다. 그 거시지표들은 무엇이며, 택일할 수 밖에 없는 이유는 무엇인가?

4-1

홍석윤

1) 거시지 표:물가안정,경제성장(률)

2) 택일할 수 밖에 없는 이유: 음의 공급 충격 발생시 공급 곡선을 변화시키는 것이 효과적이지만 현실적으로 어렵기 때문에 다양한 정책으 통해 수요 곡선을 이동시킨다.

* 수요곡선이 왼쪽으로 이동(수요 감소)하면 가격은 안정시킬 수 있으나 경제 성장률이 떨어지고

* 수요 곡선이 오른쪽으로 이동(수요증가)하면 경제가 부흥하겠지만 물가는 상승한다. 따라서 택일할 수 밖에 없다.

- (b) (11 points) 대부자금시장모형을 생각해보자. 정부가 재정지출을 증가시키면 구축효과가 발생한다. 구축효과가 무엇인지 설명해보자(5). 정부의 재정지출 증가는 어떻게 평가할 수 있는가(6)?

4-2

유승연 정부가 재정지출을 늘리면 대부자금의 수요량이 증가해 대부자금의 수요곡선이 오른쪽으로 이동하고 그 결과 균형 이자율이 상승한다. 이자율 상승은 민간 투자를 줄이는데 그 감소량은 $Y - Y^*$ 라고 할 수 있다. 그리고 이 감소분 만큼 정부는 대부자금을 차입하는 것이다. 이처럼 정부의 재정지출 증가가 민간투자를 위축시키는 것을 구축효과라 할 수 있다. 하지만 장기적으로 정부의 지출 증가가 경제 성장의 원동력이 될 수 있는데 이는 정부지출이 $rGDP$ 의 한 요소로 직접적 영향을 미치고 있기 때문이다. 즉, 정부의 재정지출 증가는 그 지출 방향과 의도에 따라 경제에 미치는 영향이 달라질 수 있다.

- (c) (11 points) AS-AD 모델에 의하면 단기효과와 장기효과는 다르다. 현재 한국 경제가 처한 상황을 그래프로 표현해보라. 이것이 일시적인 불황이라면 장기적으로는 어떻게 조정될 것인가? 장기조정과정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정부가 적극적으로 개입하는 이유는 무엇인가?

4-3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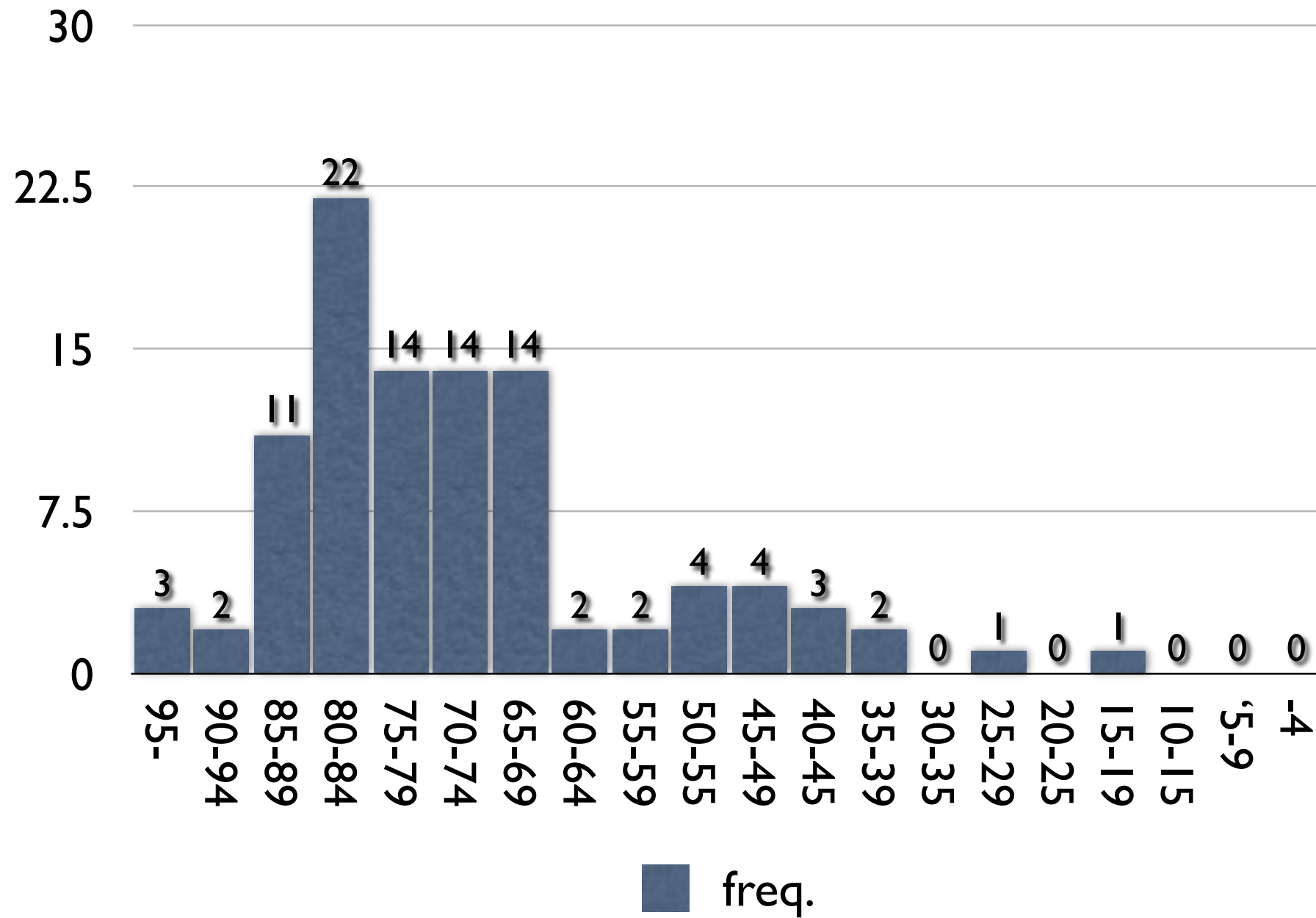
김재희 현재 한국경제는 경제성장에 대한 기대 하락 등으로 총 수요곡선이 왼쪽으로 이동하여 recession gap이 발생한 상태이다. 이것이 일시적인 불황이라면 장기적으로는 SRAS곡선이 오른쪽으로 이동해서 실제 rGDP와 잠재 생산량이 같은 장기경제균형에 다다를 것이다. 일시적인 불황이면 실업률이 높아 명목임금이 낮아질 것이고 기업의 이윤은 높아지므로 생산량을 늘려 SRAS곡선이 오른쪽으로 이동하기 때문이다. 그러나 정부가 적극적으로 개입하는 이유는 그 과정에서의 고실업률이 국민경제에 큰 타격을 주고 국민 후생에 고통스런 영향을 주기 때문이다.

중간시험통계

Main Stat

- Average: 72.3
- Standard Deviation: 15.2
- Maximum: 97
- Median: 76

Histogram



Distribution Table

class	cum. freq.	freq.	freq(%)	cum.freq(%)
95-	3	3	3	3
90-94	5	2	2	5
85-89	16	11	11	16
80-84	38	22	22	38
75-79	52	14	14	52
70-74	66	14	14	66
65-69	80	14	14	80
60-64	82	2	2	82
55-59	84	2	2	84
50-55	88	4	4	88
45-49	92	4	4	92
40-45	95	3	3	95
35-39	97	2	2	97
30-35	97	0	0	97
25-29	98	1	1	98
20-25	98	0	0	98
15-19	99	1	1	99
10-15	99	0	0	99
'5-9	99	0	0	99
-4	99	0	0	99

시험점수 공지

- 개별 점수는 EKU에 공개
 - (본인 것만 확인 가능)
- 시험지 확인 및 클레임은 원칙적으로 오늘만 가능. (못 온 친구들에게 알려주세요)
- Office Hour: 16:00~18:00
- 홍보관 현관에서 010-6343-2884로 문자

수고하셨습니다!

